

“창조경제로 경제부흥... 제2 한강의 기적 만들어 내겠다”

■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 방향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문화'다. 성장동력인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취임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정치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둔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

깨끗·투명·유능... 신뢰받는 정부 구축

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분을 쌓겠다"고 덧붙였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강조한 것은 역대 정권들에서 끊이지 않았던 측근비리·친인척 비리 등 정치권의 대표적인 부패 사슬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예들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유능한 정부'는 코드 인사, 동문 인사 등이 과

거 정권에서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는 점에서 집권기간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깨끗·투명·유능'이라는 콘셉트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간 정치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추진할 개혁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새정부의 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부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흥의 양대 주축돌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토대 위에 성장과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요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론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민주화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국민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돼야 한다

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를 비중있게 언급하며 '국민안전'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새 정부의 지향점인 '국민행복'이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며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월12일 제

北核 강력대응·대북정책은 유연하게

3차 핵실험 이후 연발했던 강력한 경고를 거듭 보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 다만, 남북대화에 비중을 두는 차

이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회복이 대전제가 돼야 진전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이제는 반대로 원조공여국이 된 점을 의식한 듯 국제적 현안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취임사에 담았다. 그는 또 4강(強) 외교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한 여내 외교에도 외교역량을 골고루 집중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회·교육·문화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발전 및 국민행복의 주축돌로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행복·문화융성'이라는 사회·문화 분야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부흥만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세

학벌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 만들겠다

부 과제로 ▲국민 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인의 능력을 주축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학생의 소질·능력을 찾아내는 교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시스템, 아울러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 정책의 방향이 쫓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정한 법 실현'을 제시하며 또 한번 '안전한 사회'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국민 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 3대 축 중 하나로 거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첫 업무 수행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사 <요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첫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

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제선에 창조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

입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실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위산의 카사파왕
 밀림 한가운데 수직으로 솟은 바위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놀라운 것은 이 바위산 꼭대기에 화려한 왕궁을 짓고 살았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travel.koreanair.com

어디에도
 없던 곳
 인도양으로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빛의만평 - 김중두

그것 있으면 성공 못합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GANS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